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 -

송 인 한[†] 박 장 호 김 리 자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36개 기관 자활사업 참여자 424명이 응답한 자활의지의 수준을 평가하였고,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남성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부채유무,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발견되었으며, 여성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감, 실무자지지,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실무자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남녀 공통으로 가족지지가 자활의지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간에 다른 요인들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대한 개입에 있어 성별차이를 고려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활, 자활의지, 성별차이, 자활사업 참여자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신진교수 지원사업(2011-05-01)과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교육효과평가사업(2011-8-2289)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연구실,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아펜젤러관 202호, E-mail : isong@yonsei.ac.kr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탈빈곤 정책으로 도입된 자활사업 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수혜자의 복지혜택에 대한 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2), 단순한 소득이전이 아닌 근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수혜자 스스로 근로에 참여하면서 낙인감을 극복하고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형하, 조원탁, 2004).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활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워크페어(workfare)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자 스스로의 자활에 대한 의지, 인식과 태도 등이 자활의 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dward, Plotnick & Klawitter, 20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취업적합여부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 부적합자 대상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즉시 취업자 중심의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95% 이상이 소속된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사회적응프로그램(디딤돌사업),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및 직업알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정부는 그 동안 자활사업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근로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활과정을 개편하며 자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과거의 자활사업에 대한 미비한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중앙자활센터, 2011). 이에 자활성공률은 2006

년 6%에서 2010년 9%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지만(보건복지부, 2010) 여전히 규모면에서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자활사업이 빈곤층의 자립지원정책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사업의 낮은 성공률은 그 동안 자활사업의 성공 여부를 탈수급률이나 소득변화, 취업여부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측면의 자활을 강조하여왔다는 데에 있다(안종순, 2001; 김영미, 2002; 김교성, 강철희, 2003; 엄태영, 2004). 양적중심의 자활사업 성과분석은 복잡적이며 다차원적인 자활의 특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미 탈락한 계층이며 다시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엄태영, 2009)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임을 고려하면(구인회, 2002), 단순히 빈곤선을 벗어나는 소득의 발생을 자활로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자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빈곤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는 정서적 자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원오, 김진구, 2005; 엄태영, 김동기, 허미영, 2008). 즉, 참여자가 탈빈곤 임금수준을 확보하는 경제적 자활에 이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래혁, 김승아, 노혜진, 2007).

한편, 성별은 그 동안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자활의지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김승의,

2007; 정재욱, 2011).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자활의지의 차이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자활의지 또는 근로 의욕, 자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권용신, 2009)와 이와는 반대로 ‘자신감’과 ‘자기신뢰’를 나타내는 자활의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이병하, 2003), 남성이 구주의 자활사업 효과성은 여성가구주보다 높다는 연구(Bane & Ellwood, 1986; Harris, 1996) 등에서 혼재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간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는 상당수 존재함에 비해,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핵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남성과 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양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활의지의 정의

자활의지는 정서적 자활의 하위 개념으로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박경숙, 박능후, 2001)라 정의할 수 있다. ‘자활의지’는 자활·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 문제해결을 하려하는 ‘자립의지’(박영란, 강철희, 1999), 빈곤에서 탈피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이 포함된

‘자활의욕’(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경제적 자립달성을 위한 매개적 요소인 자활의지수준으로의 ‘근로의욕’(노희경, 2004)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된다. 이러한 자활의지는 자활의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심리적 변수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김세원, 2005), 자활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자활의 경로 역할을 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평가된다(엄태영, 2010). 따라서 자활의지는 수급탈피를 위한 취업 및 소득증가와 같은 경제적 자활과 함께 과정적 측면의 성과 평가로서 반드시 필요하며(이상록, 2003), 자활사업은 궁극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목적으로서 수급자들의 자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즉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Edward et al., 2001).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먼저 연령과 학력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인적자본이론에 의거하여 개인적으로 취약한 인적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현, 2001; 박경숙, 박능후, 2001). 연령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Peter & Dennis, 1997; Amy, 2000)로 연령에 따른 자활의지는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영미, 2002; 김교성, 강철희, 2003; 나구원, 2011)와 연령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이상록,

진재문, 2003; 김연정, 2006). 학력은 빈곤가구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상관없이 고용과 소득 및 자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Harris, 1996; Amy, 2000).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월평균소득과 부채 또한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부채가 없는 경우가 반대인 경우에 비해 더욱 좋은 자활 요건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wkins, 2002; 신은주, 2004; 홍경준, 2004). 특히 부채의 경우 가구 부채액은 조건부수급자의 긍정적 생활태도에 부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2003).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 변수 역시 자활효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 여부는 수급기간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여 미혼인 경우 수급기간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결과(Sandefur & Cook, 1998; Amy, 2000)와 가구원수는 빈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박병현, 1997; 김교성, 반정호, 2004; 홍경준, 2004). 자활참여기간은 자활의지와 서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자활보호 대상자의 수급기간과 그 탈피율에 대한 연구(박병현, 1997)는 2년 이내 수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가구는 장기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반복적인 수급경험이 장기적인 수급의 가능성을 높여 근로의 빈민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복지수혜자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나 삶에 대한 건강한 목적으로 자활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며(Danziger, Kalil & Anderson, 2000),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손수진, 2004; 김승의, 2007; 김연정, 2006). 또한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관한 많

은 연구들이 존재한다(Link & Phelan, 1995; Mirowsky & Ross, 2003). 저소득계층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낮아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욱 많이 경험하며(House, Pauls & Pamela,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3이상이 불안과 우울증, 신체화 장애,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는 등(박상규, 이병하, 2004), 저소득층은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Holahan, Moos, Holahan & Brennan, 1997).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자활사업 참여자는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은선, 2005). Taylor (2001)는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증이 직무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alil와 Schweingruber 및 Seefeldt(2001)는 우울증상이 있는 복지수혜자의 근로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지수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우울증상이 없는 수혜자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설명하였다.

가족과 실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박영란, 강철희, 1999; 김선희, 2001; 김세원, 2005; 변규란, 이정은, 최수찬, 2007),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을 의미하며(Cobb, 1976), 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Cohen & Hoberman, 1983)을 포함한다. Kaplan과 Robbinson 및 Maetin (1983)은 사회적 지지를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지지', 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질적지지', 수용, 긍정적 자기 평가를 의미하는 '평가적지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의 4가지 하

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박영란, 강철희, 1999),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심리적 안녕 및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보고되었다(이병하, 200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주체에 따라 가족과 이웃, 친척, 친구,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제공 주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 제공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박영란, 강철희, 1999; 김선희, 2001; 최종희, 2010).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크게 가족 지지와 실무자 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생활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 간의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김은선, 2005) 가족의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가족지지(Cobb, 1976)의 효과가 크며, 지역자활센터의 전문가의 '격려·독려함'의 정서적 지지가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황정임, 2005)과 사회복지사의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립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강민정, 2000) 실무자 지지의 중요성이 큰 것에 기인한다.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의 차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별 역시 그 동안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왔는데(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김승의, 2007; 권용신, 2009; 정재욱, 2011),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자활의지 또는 근로 의욕, 자활에 대한 긍

정적 태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차지한다(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권용신, 2009).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의 여성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활의지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에 대한 직무만족도 까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생활력과 근로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용신, 2009). 또한 여성은 자활사업 참여 후 남성보다 근로활동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어 자립태도 형성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이상록,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특히 조건부 수급자여성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세대주 및 가구원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활로 가는 과정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활의지수준은 매우 높으며(신은주, 2004), 여성의 경제적 자활까지의 진입기간이 남성에 비해 더 짧아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경제적 자활에 진입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교성, 강철희, 2003).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신감과 자기신뢰를 나타내는 자활의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이병하, 2003), 가구주의 성별차이에 따른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미흡하다는 연구들(Bane & Ellwood, 1986; Harris, 1996)도 있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의 차이를 보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그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혼재 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다소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범위가 전국이 아닌 협소한 지역에 해당하거나(이상록, 2003; 이병하, 2003; 정재욱, 2011), 연구대상 유형에 있어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또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변수선택에 있어 변수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2차 자료 사용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권용신, 2009).

남녀간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자활의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의미와 연관지어 일과 직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Worthley(2009)는 노동력의 동기를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남성은 직무내적 요인, 즉, 회사(일)의 성장가능성, 성취감, 일에 대한 인정 등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직무외적 요인, 즉, 타인과의 관계, 수퍼비전 또는 지도력의 질, 공정한 평가, 일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일의 속성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메타분석(Konrad, Ritchie, Lieb & Corrigan, 2000)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남녀가 가지고 있는 성고정 관념이나 성역할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이 강하며, 생계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온 남성은 일에 있어서도 임금이나 승진, 자유, 도전, 지도력, 파워를 중시하는 반면, 우울감이 높고, 돌봄 성향이 강한 여성은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온 만큼 편리한 통근과 일하기 좋은 시간대, 대인 관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등을 중요하게 보고하였다(Feingold, 1994). 또한 여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남성보다 가족과 연관된 미래를 강조하고(Greene & Debacker,

2004), 가치부여측면에서 남성이 일에 대한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반면, 여성은 이타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점(Fiorentine, 1988) 등을 통해서 볼 때,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연구실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포괄적 자활에 대한 정신건강적 접근’ 연구와 중앙자활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2011년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신건강적 교육효과 분석’ 연구를 위해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전국 지역자활센터 36개 기관 자활사업 참여자 총 88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설문을 실행한 1차 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총 4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자활의지(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는 ‘소득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자활에 이르려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으로 정의된다(김승의, 2007; 권용신, 2009).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미(2002)와 김승의(2007)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76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

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개인특성, 가족 특성, 자활사업관련특성, 사회적 지지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부채유무, 우울, 주관적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0, 대학 중퇴 이상=1, 부채유무는 부채 있음=1, 없음=0의 이분형 변수로 처리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은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중 하나로(김형용, 2010)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에 대해 5점 척도로 처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한국 복지패널 4차 자료에서 사용한 CES-D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지난 1주일 동안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11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4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월평균 소득,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0, 100만원 이상=1, 배우자 있음=1, 없음=0, 가구원 수는 연속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자활사업관련 특성변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으로 개월 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가족 지지, 자활관련 실무자 지지로 김인숙(1994)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사용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지 않는 문항을 재구성하여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내가 필요로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 준다’ 등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의 Cronbach's α 는 .953, 자활관련 실무자 지지 척도는 Cronbach's α 는 .93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95명으로 전체의 22.7%, 여성은 323명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353명(85.5%)으로 나타났고, 전문대 이상은 60명(14.5%)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 배우자 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75명(66.7%)이었고, 137명(33.3%)이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94명(71.9%), 100만원 이상이 115명(28.1%)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100만원 미만수준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유무에 대해서는 166명(41.0%)이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238명(59.0%)의 대상자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50%이상의 대상자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8.25로 나

타났으며, 대상자들의 가구원 수 평균은 2.93으로 평균 3명의 가족구성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에 있어서는 3.33으로 나타나 5점 척도 상에서 평균보다 높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울수준에 대해서는 1.84를 나타내 4점 척도 상의 평균보다 낮은 우울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있어서는 평균 27.40개월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5점 척도 상에서 가족 지지는 평균 3.32, 자활사업 실무자 지지는 평균 3.18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N(%) / M(SD)
성 별	남 성	95(22.7)
	여 성	323(77.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353(85.5)
	전문대 이상	60(1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275(66.7)
	배우자 있음	137(33.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94(71.9)
	100만원 이상	115(28.1)
부채 유무	부채 없음	166(41.0)
	부채 있음	238(59.0)
연 령		48.25(8.15)
가구원 수		2.93(1.33)
주관적 건강		3.33(1.11)
	우울	1.84(0.57)
참여기간		27.40(26.25)
가족 지지		3.32(0.72)
자활사업 실무자 지지		3.18(0.77)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74명(59.6%), 전문대 이상은 21명(40.4%)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가 276명(87.6%)으로 나타났고, 전문대 이상이 39명(1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53, p<.05$). 또한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8.2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연령 51.26, 여성의 경우에는 47.3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자활사업 참여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36, p<.001$). 주관적 건강의 경우에 남성은 평균 3.63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3.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22, p<.01$). 교육수준, 연령, 주관적 건강 이외에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남 성(n=95)		여 성(n=323)		K ² / t
		N	%	N	%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74	59.6	276	87.6	5.53*
	전문대 이상	21	40.4	39	1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6	59.6	218	69.2	3.04
	배우자 있음	38	40.4	97	30.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6	70.2	225	72.1	0.13
	100만원 이상	28	29.8	87	27.9	
부채 유무	부채 없음	37	40.7	126	40.5	0.00
	부채 있음	54	59.3	185	59.5	
변 수		M	SD	M	SD	K ² / t
연 령		51.26	7.43	47.36	8.15	4.36***
가구원 수		2.77	1.58	2.97	1.25	-1.28
주관적 건강		3.63	1.01	3.24	1.13	3.22**
우울		1.82	0.53	1.85	0.58	-.35
참여기간		27.31	27.02	27.67	26.21	-.11
가족 지지		3.27	0.57	3.34	0.76	-.89
자활사업 실무자 지지		3.23	0.64	3.17	0.82	.76

***p<.001, **p<.01, *p<.05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자활의지	1							
2. 참여기간	.01	1						
3. 연령	.08	.15**	1					
4. 가구원	-.01	-.02	-.30***	1				
5. 주관적 건강	.12*	.06	-.03	.17**	1			
6. 우울	-.25***	-.08	.04	-.04	-.30***	1		
7. 가족 지지	.41***	.02	-.02	.01	.13*	-.34***	1	
8. 실무자 지지	.46***	-.01	.00	.03	.13*	-.23***	.58***	1

***p<.001, **p<.01, *p<.0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자활의지는 주관적 건강과 정적인 상관관계($r=.12, p<.05$),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r=-.25, p<.001$), 가족 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r=.41, p<.001$), 실무자 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r=.46, p<.001$)를 나타냈다. 즉, 주관적 건강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차이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모형과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약 4%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독립변수들을 투입했을 때는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27%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연령($\beta =.11 : p<.05$), 우울($\beta =-.13 : p<.05$), 실무자 지지($\beta =.28 : p<.001$), 가족

지지($\beta =.18 : p<.01$)가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약 16%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독립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약 31%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연령($\beta =.36 : p<.01$), 부채($\beta =-.27 : p<.05$), 가족 지지($\beta =.32 : p<.05$)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약 2%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을 때는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약 29%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우울($\beta =-.15 : p<.05$), 실무자 지지($\beta =.34 : p<.001$), 가족 지지($\beta =.17 : p<.05$)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우울이 낮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 부채, 가족 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 실무자 지지, 가족 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 분석결과

변 수	전 체				남 성				여 성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성 별	.11(.08)	.08	.12(.07)	.09									
연 령	.01(.00)*	.12	.01(.00)*	.11	.02(.01)*	.26	.03(.01)**	.36	.01(.01)	.10	.00(.00)	.06	
인구 학 력	-.07(.09)	-.05	-.07(.08)	-.05	-.09(.13)	-.08	-.10(.14)	-.08	-.04(.11)	-.03	-.05(.10)	-.03	
통계학적 변수	월평균 소득	.03(.07)	.03	-.01(.07)	-.01	.09(.14)	.08	.07(.15)	.06	.02(.09)	.02	-.02(.08)	-.01
독립 변수	배우자 유무	-.12(.07)	-.11	-.11(.06)	-.09	-.34(.16)*	-.32	-.25(.16)	-.24	-.07(.08)	-.06	-.07(.07)	-.06
	부채유무	-.14(.06)*	-.12	-.08(.06)	-.07	-.22(.12)	-.20	-.29(.12)*	-.27	-.19(.07)	-.09	-.02(.07)	-.01
	가구원	.04(.03)	.09	.02(.03)	.05	.04(.06)	.12	.02(.06)	.05	.05(.03)	.10	.02(.03)	.04
영향변수	우울			-.12(.05)*	-.13			-.10(.12)	-.11			-.14(.06)*	-.15
	주관적건강			.03(.03)	.05			.01(.06)	.03			.03(.03)	.05
	참여기간			.00(.00)	.06			-.00(.00)	-.04			.00(.00)	.06
	실무자 지지			.20(.04)***	.28			.02(.13)	.03			.23(.05)***	.34
	가족 지지			.13(.05)**	.18			.29(.14)*	.32			.12(.05)*	.17
모델관련 통계치	Constant = 12.52		Constant = 7.04		Constant = 5.89		Constant = 2.04		Constant = 11.87		Constant = 7.42		
	F = 1.81		F = 9.80***		F = 2.22		F = 2.60**		F = .79		F = 9.17***		
	R ² = .04		R ² = .27		R ² = .16		R ² = .31		R ² = .02		R ² = .29		
	Adj R ² = .02		Adj R ² = .24		Adj R ² = .09		Adj R ² = .19		Adj R ² = -.01		Adj R ² = .26		

***p<.001, **p<.01, *p<.0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논 의

자활에서 자활의지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교육수준, 연령, 주

관적 건강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어린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낮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공히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령, 우울, 실무자 지지, 가족 지지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증가할수록, 가족 지지가 증가할수록 자활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기존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난다(김영미, 2002, 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황정임, 2005; 권용신, 2009).

셋째,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지만(Peter & Dennis, 1997; Amy, 2000), 연령간 자활의지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영미, 2002; 김교성, 강철희, 2003; 나구원, 2011)는 취약한 인적자본으로서의 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 및 자활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립태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며(이상록, 2003),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활의지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김연정, 2006). 이것은 연령 자체가 소득 향상이나 일자리 획득을 위한 경제적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의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근로’를 매개로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회복되어 삶의 의욕 및 자활의지가 향상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채의 경우 부채액이 높을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이상록, 2003), 실질적인 자활사업 성과로서의 긍정적 생활태도 형성은 부채가 높을수록 잘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진재문, 2003). 즉, 부채가 높을수록 규칙적인 생활이나 음주량·흡연량 감소

와 같은 생활태도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채무부담에 따른 이차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자활의지가 낮아지므로, 부채가 없을수록 자활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낮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증가할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인 경우 만성적 우울증상을 가지기 쉬우며, 이것이 근로 행위와 근로소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Mizell, 1988; Kunz & Kail, 1999; Rebecca, 2000)으로 나타나 이와는 반대로 여성의 우울이 낮을 때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에 의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살아온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친구나 이웃이 아닌 전문가나 실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무자가 제공하는 자활을 위한 정보나 물질, 서비스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주어질 경우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족 지지가 자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가족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사회적 지지 기반 체계를 강화하도록 돕는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고려

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령과 부채 등의 참여자 개인 특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 실무자 지지 등의 정서적인 특성이 자활의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백지은, 2010)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또한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주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 또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유의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더욱 효과적으로 여성 참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인 원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게 있어서 부채 문제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빈곤 여성은 육아 및 가사노동과 근로 노동의 이중 부담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2001, 이인숙), 특히 자

녀를 부양하는 빈곤 여성은 고통과 절망감, 무기력, 자존감의 상실,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Belle, 1982). 빈곤여성이 겪는 정신건강의 문제, 이 중에서도 만성적 우울증상과 낮은 자아 존중감이 근로 행위와 근로소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Mizell, 1988; Kunz & Kail, 1999; Rebecca, 2000)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우울성향이 자활의지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Konrad, Ritchie, Lieb & Corrigan, 2000; Greene & DeBacker, 2004)은 남성에 비해 보다 넓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희, 2010), 빈곤 여성인 경우는 사회나 이웃으로부터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쉽고 자신을 부정하는 경향이 더 많다(김지영, 2003).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 간의 왕래가 적고 그들로부터 경제적·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 여성은 낮은 삶의 만족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지기 쉬우므로(김은선, 2005), 이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체계가 남성보다 빈곤여성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 주체로서 가족과 실무자 집단만 구분하여 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는 가족과 실무자 집단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 집단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 제공주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활의지에 관한 연구가 제시하지 않았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인 자활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및 미시적 접근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 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출 청소년 부랑 경험의 정도와 형태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용신 (2009).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김교성, 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교성, 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선희 (2001).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 (2005).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의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 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 (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실천과제. *토론회 자료집*.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 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 (2006). 자활사업의 자활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선 (2005). 빈곤여성가구주의 심리 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3).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자활사업 참여 지속자와 중단자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사회자본 맥락효과에 대한 해석. *한국사회복지학*, 44(2), 59-92.
- 나구원 (2011). 자활사업 프로그램 유형이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희경 (2004).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 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 박병천 (1997).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45-67.
- 박영관,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 (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25-445.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 손수진 (2004).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효과성에 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신은주 (2004).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규관, 이정은, 최수찬 (2007).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 139-166.
- 안종순 (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성동구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태영 (2004).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태영, 김동기, 허미경 (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8, 1-24.
- 엄태영 (2009).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대한 개인 및 지역자활센터 조직요인 연구 - 통합 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태영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229-248.
- 이래혁, 김승아, 노혜진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사회 특성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자활후원기관협회 자활사업논문공모전 자료집, 6-39.
- 이병하 (2003). 자활후견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이상록,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 이인숙 (2001)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 27-56.
- 이형하, 조원탁 (2004). 한국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정원오, 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정재욱 (201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참여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1(1), 127-156.
- 중앙자활센터 (2011). 자활사업안내(<http://www.cssf.or.kr>).
- 최종희 (2010). 사회적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09.
- 황정임 (2005).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y, L. E. S. (2000).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ane, M., & D. Ellwood. (2001). Welfare Realities. in Linda M. Procono. *Moving toward Self-Sufficiency in Connecticut: The Impact of Risk and Informal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Adaptation for High-risk TANF Recipients*. Ph. D.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 Belle, D. (1982).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Sage Publication.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anziger, S. K., Kalil, A. & Anderson, N. J. (2000). Human capital,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of welfare recipients; Co-occurr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56(4), 635-654.
- Edward, M. E., Plotnick, R. & Klawitter, M. (2001). Do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82(4), 817-827.
- Feingold, A. (1994). Gender Difference in Personality: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29-456.
- Fiorentine, R. (1988). Increasing similarity in the values and life plan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Evidence and implications, *Sex Roles*, 18, 143~158.
- Greene, B. A. & Debacker, T. K. (2004). Gender and Orientations Toward the Future: Links to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2), 91-120.
- Harris, K. M. (1996). Life after Welfare: Woman, Work and Repeat Depend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317-352.
- Hawkins, R. L. (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 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Holahan, C. J., Moos, R. H. , Holahan, C. K. & Brennan, P. L. (1997). Social context,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n expanded model with cardiac 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918-928.
- House, J. S., Pauls, M. L. & Pamela, H. (2005).

-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gitudianl Study form 1986 to 2002.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05B (Special Issue II)*: 15-26.
- Kalil, A., Schweingruber, H. A. & Seefeldt K. S.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5)*, 701-723.
- Kaplan, H. & Robinson, C. & Maetin,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Adult: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Kling, K. C., Hyde, J. S., Shower, C. J. &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 in Self Esteem: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4)*, 470-500.
- Konrad, A. M., Ritchie, E. J., Lieb, P. & Corrigan, E. (2000).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job attribute preferenc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6(4)*, 593-641.
- Kunz, J. & Kail, A. (1999).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elfare use. *Social Work Research, 24(2)*, 119-124.
- Link, B. G. & Phelan, J (1995).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35*, 80-94.
- Mizell, C. A. (1998). Rising Above Poverty; The Consequences of Poverty Statu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arning; Research Summaries are published by North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6(2)*.
- Mirowsky, J. & Ross, C. E. (2003). *Social Causes of Psychological Distress*. (2nd ed.) NY: Aldine-de Gruyter.
- Peter A. & Dennis K. O. (1997). *Predictors of Employment and Earnings among Jobs Participants*. in Partical L. Ewalt, Ewalt M. Freeman, Stuart A. Kirt and Dennis L. Poole(eds.) *Social Policy: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NASW Press.
- Rebbeca, K. Y.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receiv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ocial Work Research; Washington. 24*, 211-222.
- Sandefur, D. & Cook, T. (1998). Permanent Exits from Public Assistance: The Impact of Duration, Family, and Work, *Social Forces. 77(2)*, 763-787.
- Taylor, L. C. (2001). Work Attitudes, Employment Barriers, and Mental Health Symptoms in a Sample of Rural Welfare Recipi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443-463.
- Worthley, R., MacNab, B., Brislin, R., Ito, K. & Rose, E. L. (2009). Workforce motivation in Japan: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and management percep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0(7)*.
- 1 차원고접수 : 2012. 5. 19.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alysis of Male and Female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In Han Song

Jang-Hoe Park

Lija Ki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of 424 male and female program participants from 36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nation-wide in Korea,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male group, age, debt, and family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while depressed mood, professionals'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in the female group. While males'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were found to be higher with older age, possessing no debt, and higher family support, females'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were found to be higher when they felt less depressed, and received more support from professionals and their family.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upport played an important role both in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and was found that different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in male and female program participants. It was also discussed that policy and micro-level intervention need to consider the gender differences in promo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Key words : *Self-sufficiency,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Gender difference,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